



어떻게 해야하죠?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는 학원 선생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원에는 장난기 많은 여자아이 한 명이 있는데, 장난 때문에 이리 저리 싸우기도 해서 그런지 싸운 정이 들었나봅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장난을 치는데, 제가 말린다고 하는 게 여짜다가 몸으로 막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의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몸끼리 부딪히다 보니, 그 아이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실내가 더워서 그 아이는 얇은 옷밖에 입고 있지 않았고 그 아이의 지나친 장난은 저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짝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제가 남선생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보다 힘이 세서 풀어주지 않았죠. 아이는 장난에 몰두해, 제가 이곳 저곳을 꺾어아도 느끼지 못했나 봅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아이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만지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아 무리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때가 가장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의도적 행위이든 아니든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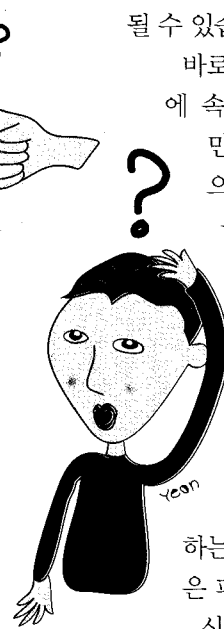
제자라고 하지만 여학생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기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신체의 반사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학생과 접촉이 행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하는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과 그 학생의 장난기를 막는다는 전제를 깔지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즐기기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엔 단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제재의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덜 하거나 못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엔 의도적인 사심이 깔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혹(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위로 손이 갈 수 있다는 것과 즐긴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죠. 의도적 그리고 만족과 충동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성적 즐거움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은 권할 만한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자신의 성적 유희 또는 즐거움을 의도로 하는 그 여학생과의 신체적 접촉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적 통제보다는 정신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장난기나 실수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행동하시고(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변 친구들에게 일일이 칭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선택만이 남은 것이죠. 멋진 선생님이로 아이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PFK**